

“억불시대, 스님들 활동은 빛났다”

승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기를 펴지 못했던 조선시대 스님들의 행적은 어떠했으며, 사대부는 불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을까?
11월 29일 동국대에서 개최된 한국불교학회 제39회 추계전국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

불교의 모습을 집적해 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조선초 천태종 고승 행호와 불교계'를 발표한 황인규(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은 조선시대 마지막 천태종 고승 행호 스님을 통해 당시의 불교계를 고찰했다.

황 연구원은 "행호 스님은 백련결사의 도량이었던 백련사를 중창하고 선종의 본산이었던 흥천사 주지를 하며 당시 불교계를 주도했다"며 "이 때문에 성리학자들의 행호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유생들에 의해 제주에 유배되어 목이 베어졌다"고 밝혔다. 또 "억불기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자 했던 조선 초 행호, 조선 중기 나암보우, 조선 후기 환성지안은 같은 운명을 처해진 조선 불교계 수호의 삼성(三聖)"이라며 "신라 이차돈, 고려 말 나옹해근의 흥법 정신을 이은 송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대 불교학과 강사는 "유정 스님은 정2품 형조판서 승지의금부사 등 다섯 개의 관직을 선조 임금으로부터 직접 내려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강사는 "유정 스님이 영의정을 지냈다는 '3월 정승' 이야기는 일

한 유몽인은 번역수행 하는 선승들의 모습을 자주 언급하고, 활어, 사어, 자득과 같은 선불교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그는 유교적 윤리강령이나 규범을 앞세워 스님들의 삶의 방식과 행적을 재단하려 들지 않았다"며 유몽인이 스님들의 삶에 개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유몽인은 번역수행 하는 선승들의 모습을 자주 언급하고, 활어, 사어, 자득과 같은 선불교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그는 유교적 윤리강령이나 규범을 앞세워 스님들의 삶의 방식과 행적을 재단하려 들지 않았다"며 유몽인이 스님들의 삶에 개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백제사찰 동서회랑 확인

부여 왕흥사 절터 조사

부여 왕흥사 절터에서 백제시대 동·서 회랑이 확인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가 3·4차 조사에서 발굴한 두 건물지는 왕흥사 동·서 회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찰배치는 동·서에 남북방향의 회랑이 있고, 중심부에 탑과 금당지가 배치돼 있다. 김용민 소장은 "회랑은 기단 하부의 기대석 위로 기와가 쌓여있는 건축형태로 국내에 비교자료가 없으며, 일본의 할태사지(穴太寺址, 송복사(崇福寺))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백제 건축기술의 일본 전파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행호 스님 등 이차돈·해근의 흥법 이어

일부 사대부들 새시각으로 불교 인식

반 백성들의 존경심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승유억불의 시대상과 영의정 제수기록이 <선조실록>에 남아있지 않고, 표충사에 전하는 선조 친필이라는 사령기가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술이 빠져있고, 이에순 사건을 윤리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는 반면, <어우야담>은 이에순의 불교에 대한 견해와 주장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만년에 금강산에서 선불교를 접

‘보천교도의 난’은 항일운동 제주 법정사 스님들이 주도

김광식 부천대 교수 주장

‘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진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논문이 발표된다. 12월 10일 오전 9시 제주학회 주최로 제주시청에서 열리는 ‘제주도 항일운동의 항일운동사적 위상’ 세미나에서 부천대 김광식 교수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운동의 성격은 항일운동이며, 주도 세력은 스님들이었음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논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도교(보천교)의 운동 가담과 관련 “1934년에 발간된 고등경찰 요사에서 박주석이 선교도 수령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행사사건부, 수행 기록이나 정구용의 판결문에는 오히려 남자 불자를 지칭하는 ‘처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참가자 400여명 중 박주석 등 4명이 선교도로 구분돼 있지만 이것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법정사 항쟁을 ‘보천교도의 난’이라고 한 것은 운동 이후에 참가대중이 대거 보천교로 입교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김연일 정구용 강민수 강창규 방동화 스님과 법정사 인부였던 김삼만, 행자 김인수, 한운옥 등 11명의 주동자 중 8명이 불교도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 등 도난문화재 회수 잇따라

최근 도난문화재가 속속 회수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울산 석남사 지장보살도(회수실 11월 20일), 구례 천은사 범종(11월 7일), 상주 용호리 삼층석탑(10월 4일), 순천



6년만에 제자리를 찾은 울산석남사 지장보살도.

매곡동 석탑출토 금동삼존불(10월 24일), 합천 경재선생문집책판(11월 14일), 남양 홍씨 종종의 장군석(11월 3일) 등 10~11월 2개월 동안 회수된 도난 문화재만 6건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7월 이후 도난 신고된 문화재 5건 가운데서는 4건이 회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2. 7. 1~11.26)에 신고된 도난문화재가 10건에 이르고, 같은 기간동안 전혀 회수되지 못했던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문화재청은 불법 문화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절취·도굴문화재를 은닉·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 시효를 연장한 개정 문화재 보호법이 7

월부터 시행되고, 검·경찰 등 관계기관이 문화재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사범단속계 류시영 씨는 “문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도난문화재의 판로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도난 문화재 제보 : (080)290-8000, (042)481-4925 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황룡사 9층탑 신라의 중심

층층 계단은 빙 둘러 허공을 나는 듯 일반 산과 일천 물이 한 눈에 잡히네. 몸은 노오(盧敖) 되어 바깥을 오르내리고 눈은 수해(瓠亥) 되어 가운데를 가고 오네. 별 그림자 차마 앞에 비되어 떨어지고 월계수 향기 난간 밑을 바람 되어 나부긴다. 굽어보니 경주의 집들이 참으로 많은데 벌집이나 개미구멍처럼 아득히 보이네. (신중동국여지승람) 중에서

탑 등 중국의 탑들은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김극기는 황룡사9층목탑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개미구멍 같은 경주의 집들을 본 것이다. 탑은 사찰의 중심이자 도시의 지표이다. 중국의 탑을 찾아가노라면 중소도시인 경주 팔리서부터 도시 한가운데 탑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아파트 20여 층 높이에 해당하는 약 80m의 황룡사9층목탑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경주를 찾는 이들은 경주 시내 어디에서나 이 탑을 보고 그곳을 향했을 것이다. 이 거대한 목탑의 스케일에 압도당한 뒤 불국사와 석굴암을



경주의 중심에 위치한 황룡사 9층목탑. 80m 높이의 이 탑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경주를 찾는 이들은 경주 시내 어디서나 이 탑을 보고 그곳을 향했을 것이다.

황룡사 탑 높이 80m ... 아파트 20층 해당

분지 한 가운데 우뚝, 경주 한눈에 조망

지 않았지만 명종(재위기간 1170~1197) 때 활약하였다. 황룡사9층목탑은 1235년 몽고의 경주까지 침입한 3차 몽고의 난 때 불타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극기가 이 시를 읊은 때는 황룡사9층목탑이 불타 없어진 시기보다 100년을 넘지 않는다. 김극기가 황룡사9층목탑을 보고 놀란 것은 높이 솟은 탑의 위용으로 시 전반에 그에 대한 감동이 깔려 있다. 그 감동 속에 차분히 살펴본다면 탑 안에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게 계단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응현의 불국사목탑, 서안의 대안탑, 낙양의 대화

찾는다면 그 감동은 더욱 가슴 깊숙이 파고 들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황룡사는 중앙을 상징하는 황룡(黃龍)이 의미하듯이 경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허허벌판이 되어버린 황룡사 터에서 주위를 돌아 보면, 동쪽에는 명활산, 남쪽에는 남산과 남산, 서쪽에는 선도산과 단석산, 북쪽에는 소금강산으로 빙 둘러싸인 분지의 중심에 황룡사가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곳에 황룡사9층목탑이 허공을 나는 듯이 솟아올랐으니, 황룡사9층목탑은 경주의 중심이자 신라의 중심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몸도, 마음도... **힘뵈었다!**

신에는 삼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Rh2, Rg3)를 함유한 세계 특유의 새로운 건강 드링크입니다.

▶ 신에는 삼 - 이리부게 구입합니다. • 정신했 · 유통적으로 기르본 불 · 깊은 음주와 수면부족으로 피곤한 직장인 ·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

■제품문의 및 문의전화 : 300-0755, 380-4421 (부산) 050-49-7020-4(직접)